# "신라는 실크로드 시작, 동서양 무역의 중심"

## 세계 석학 한 목소리… '실크로드 고대 수도' 국제학술대회서

실크로드에 있는 고대 도시의 활발한 교역과 독창적인 문화를 조명하고 실크로드가 옛 도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18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과 경주대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이 '실크로드와 고대 수도'를 주제로 마련했다.

고대 실크로드(Silk Road)가 중국 서안(西安)에서 시작해 로마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신라에서 로마를 잇는 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경주에서 8~9세기 신라 귀족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유행하던 장식품, 보석류, 공예품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주에서 신라에 이르는 1만2000㎞의 길을 통한 교역품 수송기간이 육로로 6~8개월이면 충분했다는 내용이다. 신라의 귀족들은 반년 남짓한 시간에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각종 상품들을 신라 귀족들은 향유했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이사장 김일윤)과 경주대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이 9월 18일~19일 개최한 '실크로드의 고대 수도' 주제 국제학술대회가 막을 내렸다.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폴란드 브로츨라프스키대학 로마학 권위학자인 고시비트 말리노포스키 교수, 카자흐스탄 이식 박물관 굴미라 무크타로파 관장, 일본 나라 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기노시타 와타루 부관장, 그리고 권영필 상지대 교수 등 국내외 학계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경주대학교 총장, 전 국회의원(헌정회원) 30여 명 등 5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학회에선 많은 학자들이 실크로드가 신라 시작해 중국 서안(西安)과 콘스탄티노플(터키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나 로마까지 이어진 길이란 주장을 했다.

굴미라 무크타로파 카자흐스탄 이식 박물관 관장은 "카자흐스탄 고분에서 나온 황금인간과 관련된 황금제 부장품들이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나온 유물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신라인들이 카자흐스탄까지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노시타 와타루 일본 나라 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부관장은 "1963년도 가시하라시 니이자와센즈카 고분 126호에서 출토된 옥류, 청동거울 등 유물 대부분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유사하다"며 "실크로드 문화가 신라를 거쳐 일본까지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박물관장인 이희수 문화인류학과 교수는는실크로드 성격과 변천사를 설명하고 경주가 실크로드 동단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크로드는 오래전부터 고대의 첨단제품 고부가가치상품인 비단을 비롯한 수많은 물품이 오고간 동양과 서양의 무역로"라며 "실크로드 연구를 통해 신라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도시였음을 세계 학계에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해외 학자들의 주장은 '경주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내의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 학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이를 증명하듯 실크로드에 걸쳐 있는 중국 둔황,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사마르칸트 등지에서 신라인이 표현된 그림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으며 경주의 유적지에서도 중국 문화권에서 볼 수 없는 로마와 아랍 문화권의 유물이 수차례 출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창립한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은 경주, 로마, 이스탄불, 시안, 교토 등 세계 5개의 천년고도를 연구하는 동시에 서울, 런던, 워싱턴 등 현대의 G20 국가의 수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과 경주대 실크로드연구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수도문화연구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로마제국의 오랜 수도로서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던 이스탄불과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던 경주간의 오랜 교역관계를 밝히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이 9월 22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개최됐다.

문화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관람객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등재 선포식은 상징물 제막,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 등재 선포,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북도립국악원, KBS 어린이 합창단 등의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공주 · 부여 · 익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 7월 독일 빈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노덕현 기자

# 충남·세종시 불교문화 살피는 세미나

충남과 세종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충남세종향토사연구연합회(회장 최석원)는 9월 3일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향토사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세종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 제1부에서는 세종시의 옛 지명인 연기군 지역의 '연기불비상(佛碑像)의 제문제'를 주제로 정은우 동아대 교수가 '연기 불비상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 했다. 이어 소현숙 원광대 교수가 '연기 불비상과 동아시아 불교조각', 이훈 공주대 교수가 '연기 불비상과 지역 문화콘텐츠'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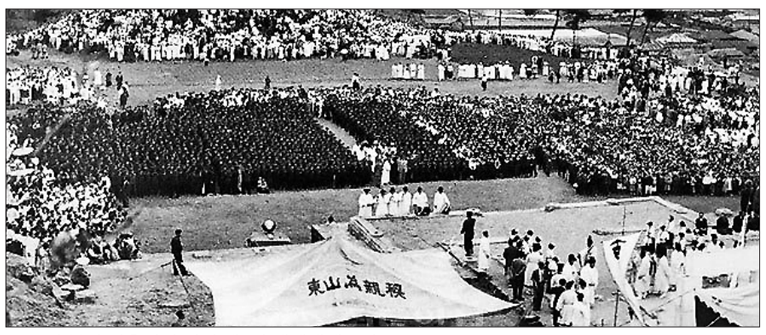
제2부에서는 보령지방 사찰의 비석과 서천 천방사 승려 변란 사건, 계룡산 동학사와 동학3사 연구, 세종지역 절터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축사에서 "향토사 대회가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높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잊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제61회 백제문화제, 정통성 강화에 나서다

## 부소산 내 삼충사, 궁녀사를 중심으로 제례 · 분향 상설화



1955년 부여 삼충사서 열린 제1회 백제대제 모습

제61회 백제문화제가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이라는 주제와' 백제 다시 태어나다 '라는 부제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백제문화제 추진위는 삼충사에서 삼충제전 사진전, 삼충신 상설 제향공간 조성, 궁녀사에서 헌화 및 분향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백제 말기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爲國獻身)한 조상들의 충절을 기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궁녀복식을 입은 안내원과 백제군사 수문장을 배치하고, 옛 토성을 따라 백제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기간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은 정림사지 주무대와 전통무대, 부소산, 석탑로 등 행사장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다.

노덕현 기자

# "아라한 제외한 모든 범부에게 자아있다"

## 임승택 경북대 교수, 불교학연구회 가을발표회서 주장

윤회하는 모든 중생에게는 자아가 있으며 무아를 깨달은 아라한에게는 업을 받을 새로운 탄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회의 주체를 두고 일어난 논쟁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임승택 경북대 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9월 19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무아 윤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자아가 없다면 누가 그 업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범부에게는 자아가 존재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아라한은 자아의 해체를 실현한 이로 무아의 경지에 머물고 있다"며 "윤회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있음을 의미할 뿐으로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다. 윤회는 '허공에 핀 꽃'과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무아윤회'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도 반론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무아윤회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논리가 연기에 근거해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닌 상호의존으로 이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아비달마에서 부각된 상호의존은 고의 발생과 소멸과정보다 사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연기를 자연과학적 생성 변화 논리로 오인하면 안된다. 연기과정이 물리법칙과 동일하다면 의지적 노력이나 실천수행 여부와는 상관없는 생성변화가 지속되고 늙음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순환구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맡은 이필원 교수는 임 교수의 무아와 연기에 대한 견해에 공감했다. "무아와 연기는 실천적 수행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이 교수는 이어 이것을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는 것은 붓다의 무아와 연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티벳대장경역경원, '불교경전 번역' 세미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0월 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2015 추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경전 번역의 제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불교 경전의 역경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과 성과, 문제점과 보완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정성준 티벳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의 '티벳대장경의 현교와 밀교문헌 비교', △이방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의 '티벳대장경 번역어의 선정에 관한 문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스마트미디어시대 대장경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근현대 역경의 단면-백용성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티벳대장경역경원 진옥 스님은 "한국불교의 역경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티벳대장경 번역 연구가 여러 대학의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티벳경전을 포함한 불교경전의 번역과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경청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창의인성 프로그램' 개설

동국대(총장 보광)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조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동국대 C · M · L연구소(소장 김애주)는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깨어있는 대학(人)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마다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창의적 영감을 꿈꾸는 대학(원)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집중적인 자아성찰로 참된 자아를 만나는 무의식 체험이 있다.

노덕현 기자


# 영 혼 의 세 계 ( 빙 의 )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